

제이앤티씨, 코스닥 예비심사 청구... '3D커버글라스 강자' 입증 나선다

- ▶ 독보적 제품 기술력 및 생산 경쟁력 기반 中·美·日 글로벌 기업으로 거래선 다변화 성공
- ▶ 키리스, 자동차 전장용 등 커버글라스 신제품 개발 완료... 전방시장 확대 본격화
- ▶ 글로벌 및 전방시장 확대 등 성장 모멘텀으로 성공적 코스닥 입성 목표

<2019-04-15> 제이앤티씨가 코스닥 시장 상장을 추진한다.

3D커버글라스 및 커넥터 전문기업 제이앤티씨(대표 김성한)가 지난 12일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하고 기업공개(IPO)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상장 주관은 신한금융투자과 유진투자증권이 공동으로 맡았고, 상장일은 올 하반기로 예정하고 있다.

지난 1996년 설립된 제이앤티씨는 20년 이상 커넥터 사업을 영위하며 기술 혁신을 거듭해 방수, C-Type 등 고부가 커넥터 제품을 선보이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왔다. 또한, 세계 최초로 휴대폰용 3D커버글라스 양산에 성공하며 플래그십 스마트폰 모델에 제품을 공급해 스마트폰 전면에 곡선 커버글라스가 적용된 '엣지폰'을 선보인 주역이기도 하다.

특히 '글로벌 고객사 다변화'와 '3D커버글라스 전방시장 확대'를 단기간 내 달성한 점이 돋보인다.

제이앤티씨는 지난 2017년부터 타사 대비 뛰어난 수율과 기술력으로 다수 글로벌 기업의 문을 두드렸고, 현재 화웨이, 오포 등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물론 미국, 일본 등 메이저 기업과 거래를 이어가며 글로벌 시장을 통한 매출처 다변화에 성공했다.

또한 스마트폰 측면을 유리로 덮는 키리스(Keyless) 스마트폰용 커버글라스도 상용화 준비를 마쳤고, 차량에 적용되는 3D 디스플레이 글라스도 제품 개발을 완료하고 양산을 준비하는 등 신제품을 통한 전방시장 확대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이앤티씨 김성한 대표이사는 "제이앤티씨는 트렌드를 읽는 선행 기술 개발로 글로벌 우량 기업으로 거래선을 확대했고, R&D 역량을 기반으로 신규 제품을 지속 선보이며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며 "코스닥 상장을 통해 이제 막 개화 단계에 접어든 차량용 3D 디스플레이 글라스 시장을 선점하고 향후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등 신규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강화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기술 리딩 컴퍼니로 도약하겠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한편, 제이앤티씨는 2018년 온기 연결기준 매출액 2,294억 원, 영업이익 255억 원을 기록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81억 원을 기록했다.

☐ 자료문의 : 제이앤티씨 박장우 상무 (070-4050-3100)

IR큐더스 한정선 매니저 (02-6011-2000 #120) / IR큐더스 윤지희 책임 (02-6011-2000 #121)